

# 다니엘서 - 열일곱 번째

예언적 연관성: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과 일요일 법령

Jeff Pippenger

2023-12-12

화이트 여사는 두라 평지의 금 신상을 일요일법으로 종종 동일시한다.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상 안식일이 세워졌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형상에 절하여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는 죽이라고 칙령을 내렸던 것처럼, 일요일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 모든 자는 투옥과 사형으로 벌하겠다는 선포가 내려질 것이다. 이처럼 주의 안식일이 짓밟힌다. 그러나 주께서는 선언하셨다. '불의한 규례를 제정하며, 그들이 정한 대로 압제를 기록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사야 10:1]. [스바냐 1:14-18; 2:1-3, 인용]." 원고 발표집 14권, 91.

이 본문에서 화이트 자매는 스바냐서를 언급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니엘서 2장과 3장의 예언적 연관성을 더한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백성이 칙령이 내려지기 전에 함께 모여야 함을 밝힌다. 그는 또한 도시들(주)과 망대들(교회)을 겨냥한 경고 기별을 상징하는 나팔 기별을 언급한다. 그는 레위기 26장의 기도가 드러질 때 일어나는 '일곱 때'의 요소인 모임을 가리킨다. 그는 '원함을 받지 못하는 나라'를 지적하는 동시에,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점차 격화되는 하나님의 집행적 심판의 도래를 강조한다.

일요일 법령의 공포에 앞서는 것은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이다.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은, 이전에 식이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치는 눈에 보이는 시험이다. 셋째(시금석)인 그 칙령이 내려지기 전에, 스바냐가 '원함을 받지 못하는 나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모이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에스겔의 첫 번째 예언은 모으라는 메시지이지만, 자기들의 흩어진 상태를 깨닫고 레위기 26장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만 성취되며, 이는 다니엘이 9장에서 그렇게 한 것과 같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매우 속히 임하리라.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그곳에서 용사도 심히 쓰라리게 부르짖으리라.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멸망의 날이요, 어둠과 캄캄함의 날이요,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치는 나팔 소리와 경보의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환난을 내려 그들이 맹인같이 다니게 하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피는 티끌 같이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똥 같이 버려지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의 은도 금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니, 그의 질투의 불이 온 땅을 삼키리라. 이는 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를 속히 멸절할 것임이라. 모일지어다, 참으로 모일지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족아; 명령이 나오기 전에, 그 날이 겨 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그의 법도를 행하던 자들아, 여호와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온유를 구하라. 그리하면 혹시 너희가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지니라. 스바냐 1:14-2:3.

성경에서 "mighty man"은 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mighty man"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기드온이다.

여호와와 사자가 와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그것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것이었다. 그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숨기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강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하였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던 그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네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말하였다.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치리라.' 사사기 6:11-16.

스바냐서에서 '용사', 곧 기드온은 쓰라리게 외쳐야 한다. 'cry'라는 단어는 마지막 때의 한밤중의 외침을 상징하고, 'bitter'라는 단어는 의로운 분노를 나타낸다. 기드온, 즉 스바냐의 '용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와 물론 그들의 조상들의 죄까지 보여 주는 책임을 지닌 엘리야 메시지를 상징한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사야 58:1.

마지막 때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서로 일치하므로, 이사야의 나팔의 메시지는 스바냐의 용사, 곧 기드온의 '외침'이기도 하며, 그들 모두가 마지막 때에 엘리야 사자와 그의 사역을 지목하고 있다. 이사야에서 이어지는 구절들은 그들의 죄를 주제넘음으로 지적하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들이 실제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고, 내 길 알기를 기뻐하며, 마치 의를 행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은 민족인 양, 내게 공의의 법도를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뻐한다. 이사야 58:2.

강한 자의 비통한 부르짖음은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이며, 그 안에는 2020년 7월 18일이 주님께 대한 오만한 죄였으므로 회개하고 자백해야 한다는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의 핵심은 짐승의 우상 형성과, 그에 뒤이어 이슬람에 의해 먼저 미국에, 그리고 이어 세계에 임하는 심판이다.

요한계시록 11장의 사흘 반 기간의 광야가 끝날 때 레위기 26장의 기도가 성취되면, 귀한 것과 천한 것이 구별될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은 황금 기름을 갖거나 갖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때 그들은 기드온의 '한 사람'처럼 될 것이다. 스바냐에 따르면 일요일 법령이 공포되기 전에 기드온, 곧 엘리야이자 에스겔이며 용사인 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2020년 7월 18일 예측에 참여한 죄와 그것이 완전히 실패한 뒤에도 그 예측을

정당화하려 한 부당한 시도를 보여 주는 쓰라림과 함께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스바냐는 마지막 때에 일요일 법령에 앞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의 모으심을 말한다. 그 모으심은 에스겔 37장의 첫 번째 예언으로도 나타난다.

이에 내가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내가 예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어 뼈들이 서로 모여 각기 제 뼈에 맞아 들어가더라. 내가 또 보니 그 위에 힘줄과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나, 그들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에스겔 37:7, 8.

에스겔은 우리 주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도시의 거리에서 죽어 누워 있던 마른 뼈들에게 예언했다. 그 뼈들은 먼저 함께 모아진다.

그들의 시체가 영적으로는 소동과 애굽이라 불리며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큰 성의 거리에 놓여 있으리라. 백성과 족속과 언어와 나라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삼 일 반 동안 보고,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두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음이라. 요한계시록 11:8-10.

그들은 삼일 반이 결말에 이르면서 모인다. 그 삼일 반은 마태복음 25장의 지체하는 때를 나타낼 뿐 아니라,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의 흩어짐이기도 하다. 모인 자들은 이전에 흩어졌던 자들이며, 스바냐는 그들을 "원치 않는 민족"으로 지칭한다. 그 "원치 않는 민족"은 세상이 그들의 시체로 인해 기뻐하는 동안 거리에 죽어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들이 함께 모인 후에는 두로의 음녀를 자기들의 머리로 높이는 말세의 용의 권세의 공격 표적이 되는 나라가 된다.

아삽의 노래 또는 시. 하나님이며,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도 마시고, 가만히 계시지도 마소서, 하나님이며.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하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거슬러 간교한 모의를 꾸미며, 주의 감추어 두신 자들을 대적하여 함께 의논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민족으로서 끊어 버려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을 맺었나이다. 시편 83:1-5.

그들의 의도는 말세의 영적 이스라엘을 끌어다가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이다. 죽은 뼈들이 '한밤중의 외침'이라는 메시지를 외치는 이사야의 '음성'을 처음 들을 때, 그들은 여전히 사흘 반의 광야에 있다.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들의 2020년 7월 18일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선택해야 한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며, 예루살렘에게 외쳐 이르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갑절을 받았음이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며,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곳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입이 말씀하셨음이라.  
이사야 40:1-5.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역을 규정하는 본문에는 매우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품성인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로 나타나듯이,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한 계시에 기초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분의 품성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되는 요소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봉인 해제이다. 또한 그의 품성이 "진리"라는 사실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세부 사항은 그 음성이 외치기 시작할 때, 그는 여전히 삼일 반의 광야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광야에서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예언적으로 그의 일이 시작될 때, 두 증인은 여전히 에스겔의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거리에서 죽어 있다. 또 다른 구체적 사실은 그 음성이 그의 일을 시작할 때 온 세상이 그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찰은 그리스도께서 십사만 사천의 죄를 도말하시는 말세의 기간에 그 메시지가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불법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줄 위에 줄'로 드러난 슬픈 사실은, 그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그 사함을 받게 될 자는 복음의 요구를 충족하는 이들뿐이라는 것이다.

레위기 26장의 기도와 관련된 요구에 응하는 자들만이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가 도말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 모든 죄에 대하여 갑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와 연관된 주님의 '손'은 첫 번째 실망의 상징인데, 주님께서 그 첫 번째 실망을 초래한 오류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 덮어 두셨던 것을 가리킨다. 밀러운동의 역사에서 그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추어진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 역사에서 그의 손은 그의 신적 섭리를 나타냈다. 마지막 때에는 그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계시된 진리를 거절함을 나타내며, 그 손은 그때 그의 신적 심판을 나타낸다.

에스겔의 첫 번째 예언의 소리로 죽은 자들이 함께 모여 형체를 이루지만, 아직 강대한 군대로 서 있지는 않다. 에스겔 37장의 두 번째 예언은 사방의 바람에서 오는 생기를 불어넣어 그것을 이룬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바람을 향하여 예언하여라. 예언하여라, 그리고 바람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방에서 와라, 생기야, 이 죽임당한 자들에게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내가 그가 명하신 대로 예언하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 발로 일어서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가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다.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완전히 끊어졌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자리 잡게 하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이것을 말하였고 또한 이루었음을 알게 되리라' 주의 말씀이다." 에스겔 37:9-14.

에스겔의 예언에 나오는 그 생기는 인치는 기별이다. 이는 그것이 사방의 바람에서 오기 때문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도 바다에도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니, 다른 한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큰 소리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7:1-3.

네 바람은 동방에서 일어나고, 예언적으로 이슬람은 '동풍'이자 '동방의 자손들'이다. 형체를 갖춘 몸들을 '심히 큰 군대'로 변화시키는 에스겔의 '생기'는 14만 4천을 인치는 기별이다. 요한계시록 7장의 인치는 기별은 동방에서 일어난다. 그 기별은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며, 스바냐는 그것을 '건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나팔의 경고'로 규정한다.

탑은 교회의 상징이다.

그 비유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유대 민족을, 울타리는 그들의 보호막이었던 신성한 율법을 가리켰다. 망대는 성전을 상징하였다. 시대의 소망, 597.

성경 예언에서 도시는 왕국이다. 교황권은 "바벨론", "저 큰 성"이다. 프랑스와 그다음에는 미국이 "소돔과 애굽"의 "큰 성"이다.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성"이다. 스바냐의 기별은 성읍들과 망대들에 대항하는 것, 곧 교회와 국가의 결합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정의상 짐승의 형상이다. 그것은 다니엘 2장의 "비밀" 기별이다.

일요일 법령의 선포 직전, 곧 다니엘서 3장의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 시험에 해당하는 때에, 죽은 자들이 깨어나 강력한 군대로 변하여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드러내어 이에 반대하는 기별을 선포하며, 또한 과거 역사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요일 예배를 강요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섭리적 도구가 이슬람임을 밝힌다. 그 기별은 그 형상이 완전히 세워져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밝힌다.

다니엘서 3장에는 일요일 법령을 향해 나아가 마침내 그때 성숙에 이르는 짐승의 우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 없이 셋째 메시지는 있을 수 없다. 이는 다니엘서 3장에 표상된 진리들의 계시에 다니엘서 2장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장의 신상의 꿈의 '비밀'은 하나님의 백성이 느부갓네살의 짐승의 우상이 지닌 생사에 관한 함의를 깨닫게 되어 가고 있음을 밝혀 준다.

거룩한 논리로 보자면,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에 대한 봉헌식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먼저 그 신상을 세워야 했고, 연주자들은 그 예식에서 연주할 음악을 연습해야 했을 것이다. 발굴과 기초 공사, 비계 설치, 인부들의 드나들 등 일정 기간에 걸친 사전 준비 공사가 반드시 있었어야 했으며, 그 준비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형상을 빚어 만드는 일이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성경 예언의 모든 왕국이 아니라 오직 한 짐승의 형상만 만들기로 작정하게 했다. 그 형상 건립이야말로,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전에, 인침을 받기 전에, 음악이 연주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통과해야 할 시험이다.

성화된 이성은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 신상 봉헌식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을 목격한 히브리 노예들 가운데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들은 단지 그 준비가 생사를 가르는 경고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해 각자 개인적인 준비를 한 유일한 히브리인들이었을 뿐이다.

이 기사 서두에 인용된 화잇 자매의 글에서 그녀는 스바냐의 칙령을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과 일요일법에 대응시킬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불의한 칙령도 지적한다.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며, 스스로 정한 억압을 기록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이 궁핍한 자를 재판에서 밀쳐내고, 내 백성의 가난한 자에게서 권리를 빼앗아, 과부들을 자기들의 먹잇감으로 삼고, 고아들을 약탈하게 하려 함이라! 별하시는 날과 멀리서 임할 황폐의 때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디에 두겠느냐? 이사야 10:1-3.

이사야의 "불의한 칙령"은 일요일 법령이며, 그것은 미국에게 "징벌의 날"과 "황폐"이다. 왜냐하면 "국가적 배도" 뒤에는 "국가적 파멸"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사야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이기도 한 그 일요일 법령의 때에, 그 "황폐"가 "멀리서 올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 범죄한 자들아, 이것을 다시 마음에 새겨라. 옛적의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यो 다른 이가 없으며, 나는 하나님이니 나와 같은 이가 없다. 나는 처음부터 끝을 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옛날부터 알려 이르기를, 나의 계획은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라 하였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새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실행할 사람을 부르리니, 내가 말하였으니 또한 이루겠고, 내가 계획하였으니 또한 행하리라. 의에서 멀리 있는 완고한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오리니 그것이 멀지 않을 것이요, 나의 구원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시온에 구원을 두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의 영광이 되게 하리라. 이사야 46:8-13.

이사야는 이 구절을 지체의 때의 끝에 둔다. 이는 그때 그의 "구원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삼일 반이 끝날 때이다. 지체의 때의 끝은 에스겔의 큰 군대가 일어설 때,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도착함으로 표시된다. 그들이 일어설 때, 그들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기치로 높이 들려진다.

사흘 반이 지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고, 그들을 본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다.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다.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보았다. 바로 그 시각 큰 지진이 일어나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사람 칠천 명이 죽었으며,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둘째 화는 지나갔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온다. 요한계시록 11:11-14.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표징으로 지진과 같은 시각에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지진은 일요일 법령이다. 그때, 곧 요한이 말하듯이 "그 시각"에, 이사야 46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실행하는 "그 사람", 곧 "동방에서 온 사나운 새"를 부르신다. 그 사나운 새, 즉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실행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먼 나라"에서 온다. 이사야 10장에서, "불의한 칙령" 곧 일요일 법령의 때에, 미국의 "황폐"는

"먼 곳"에서 온다. "동방"은 이슬람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예언에서 그들은 "동방의 자손"이자 "동풍"이기 때문이다. 예언에서 "새"는 종교를 의미하며, 바벨론이 가증하고 부정한 새들로 가득한 우리로 묘사되는 것이 그 예다. 동방의 먼 나라에서 오는 "사나운 새"는 이슬람 종교를 가리킨다.

그가 힘센 음성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처소요 모든 더러운 영의 감옥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우리가 되었고도다.  
요한계시록 18:2.

현대 바벨론의 삼중 연합은 세 가지 형태의 정부를, 또한 세 가지 형태의 종교를 나타낸다. 유엔의 종교는 심령주의이며, 미국의 종교는 배도한 개신교이고, 교황의 종교는 가톨릭교이다. 그 모든 종파들은 때로는 여성으로, 또한 새로 상징된다. 미국을 주된 왕으로 하는 유엔의 종교적·정치적 세력이 교황권을 지상의 왕좌에 앉힌다. 스가랴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그 불법한 자'로 지목한 교황을 두 마리의 새가 세우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때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나아가서 내게 이르되, 이제 네 눈을 들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더라. 내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니이까? 그가 이르되, 이것은 나아가는 에바니라. 또 이르되, 이것은 온 땅에 있는 그들의 형상이라 하더라. 보라, 한 달란트 되는 납덩이가 들어 올려졌고, 에바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가 이르되, 이것은 악이라 하고, 그 여자를 에바 한가운데에 던지며 그 입구 위에 그 납덩이를 던져 덮더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두 여자가 나왔는데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었고, 그들의 날개는 황새의 날개 같았으며, 그들이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에 들어 올리더라.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이르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가져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시날 땅에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집이 준비되면 거기 그 받침 위에 그것을 두리라 하더라. 스가랴 5:5-11.

에바는 측정에 쓰이는 바구니다. 에바, 곧 교황권이 그 한가운데 앉아 있는 바구니를 놓는 두 여인은 두 교회다. 두 종교가 성경에서 '그 악한 자'로 규정된 그 종교를 데려다가 시날 땅에 그녀를 위한 집을 지을 것이다. 시날은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며, 가톨릭 교회는 마지막 때의 큰 바벨론이다.

바벨론에 있는 그 악한 여자를 '세우는' 두 여자의 날개에는 '바람'이 있다. 그 여자들은 '날개'가 있으므로 새이기도 하며, 그 여자를 자리 잡게 하는 그들의 근거는 이슬람의 '바람'이다. 이는 이슬람이 모든 사람의 손을 한데 모으기 때문이다. 들어 올려지는 그 여자는 1798년에 치명상을 입은 이후 에바 속에 갇혀 있었으니, 그가 들어 있던 에바의 입구 위에는 납 뚜껑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경배 의식의 음악이 시작되면, 배도한 개신교와 심령주의의 두 여자가 그 납 뚜껑을 제거하고, 일곱에 속한 여덟째 머리를 들어 올린다.

"우리가 마지막 위기에 다가갈수록, 주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 사이에 조화와 일치가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이다. 세상은 폭풍과 전쟁과 불화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하나의 머리—곧 교황권—아래에서, 사람들은 그분의 증인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이 연합은 대배도자에 의해 결속된다. 그가 진리를 대적하는 전쟁에 그의 대리자들을 결집시키려 하는 동안, 그는

또한 그 진리의 옹호자들을 분열시키고 흩어 버리려고 역사할 것이다. 불화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는 시기와 악한 의심과 악담을 선동한다.” 교회증언 7권, 182쪽.

삼중 연합은 교황권을 머리로 세우는데, 이는 그들이 탐탁지 않게 여기는 민족을 멸하려 하기 때문이다.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 간계를 꾀하고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시편 83:2-4.

새는 종교이며, '한밤중 외침'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때, 곧 '주일법'의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동방에서 오는 사나운 새'는 이슬람이다. 그래서 부활한 죽은 자들이 기치로서 하늘로 올라가는 바로 그 시각에 이슬람의 '셋째 화'가 속히 임한다. 이 때문에 이사야 10장 1절은 '불의한 법령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한다. 요한계시록의 '화들'은 이슬람이며,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강요한 것에 대해 미국을 벌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섭리적 심판, 혹은 도구, 혹은 막대기(이사야 10:5)이다.

이사야 46장은 '동방에서 오는 사나운 새'를 '나의 모략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지목한다. 그 '사람'은 이슬람이며,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리고 그 후에는 온 세상을, 일요일 준수를 강제한 일로 인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그는 '먼 나라에서' 온 자라 불린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교 로마에 대해 처음 네 나팔로 하셨고, 이어 다섯째와 여섯째 '화' 나팔에서는 교황 로마에 대해 하신 것과 같다. 이사야 46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 '동방에서 오는 사나운 새'를 부르시는 것이며, 자신의 모략과 목적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알려 주신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다른 이가 없으며, 나는 하나님이니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처음부터 끝을 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며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서 10장 3절에서 이사야는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기록합니다:

별하시는 날과 멀리서 임하는 황폐가 닥칠 때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도움을 얻으려고 누구에게로 도망하겠느냐? 너희의 영광을 어디에 두겠느냐? 이사야 10:3.

마지막 질문은 영화로운 땅이 불의한 칙령이 내려질 때 그 영광을 잃는다는 것을 밝힌다. 미국의 영광은 헌법이며, 그 헌법은 일요일 법령이 내려질 때 완전히 무력화된다.

그리고 헌법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자치권을 보장한다. 종교의 자유도 부여되어, 모든 사람은 각자의 양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공화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이 국가의 근본 원칙이 되었다. 이러한 원칙들이 그 나라의 힘과 번영의 비결이다. 위대한 논쟁, 441.

일요일법에서 먼지 속에 남겨진 영광을 밝혀주는 것은 헌법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그 위에 전능의 방패를 펼치셨던 그 나라가 개신교의 원칙을 버리고, 그 입법부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에서

로마주의를 묵인하고 지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권능으로 일하실 것이다. 로마의 폭정이 행사될 것이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206.

이사야가 말한 '불의한 칙령', 곧 주일법이 선포될 때 미국의 영광은 사라진다. 그리고 미국은 세 번째 '화'에 해당하는 이슬람의 공격에 대처할 도움을 구하고자, 예언적으로 볼 때 계시록 17장의 열 왕 연합체인 유엔으로 도피함으로써 이사야의 두 번째 질문에 즉시 답한다. 세 가지 질문 중 첫째는 주일법이 가져올 황폐의 정황을 규정하는데, 그로 인해 미국은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온 세계가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다음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그 불경한 결합은 유엔과 가톨릭 교회의 통합으로 표상되며, 교황이 그 관계를 지배한다. 그것은 그 황폐를 '벌하심의 날'이라 부른다. 이러한 모든 예언적 실상은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 봉헌식과 상응한다.

우리는 다음 기사에서 다니엘 3장을 이어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오늘날 땅의 거민들에게 내릴 정죄는 그들이 빛을 거절했기 때문일 것이다. 심판에서 우리가 정죄받는 것은 우리가 오류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라는 하늘이 보내주신 기회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진리에 정통하게 될 수 있는 수단은 모든 이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 그러나 방종하고 이기적인 왕처럼 우리는 귀를 매혹시키고 눈을 기쁘게 하며 입맛을 만족시키는 것들에,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 곧 진리의 신성한 보화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위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Bible Echo, 1894년 9월 17일.